

[요약문]

포스트코로나 가족문화 변화 가능성 : 명절보내기 실태를 중심으로

손서희(숙명여자대학교)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정부는 추석 특별방역기간 종합대책을 마련·발표함. 특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고향 방문 등의 이동 자제를 당부하고, 인터넷 차례 지내기,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 제공 등의 비대면 추석 지원 방안을 마련함.
- 코로나19에 따른 전 사회적 혼란 상황에서 처음 맞이한 올 추석 명절과 관련하여 국민들의 경험을 살펴보고, 향후 가족생활 및 명절 문화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 마련이 필요함.
- 이에 본 연구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하의 추석 명절 경험 및 향후 명절 변화 전망, 노부모-성인자녀 관계, 결혼 및 가족 관련 인식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통해 향후 가족관계 및 가족생활지원 서비스 방향을 도출하고자 함.

II. 연구방법

1. 조사개요

구분	내용
조사 대상	· 본인이나 배우자의 부모님이 최소한 한 분 이상 생존해 계시고 혼인 경험이 있는 만 20세 이상 55세 이하의 일반 국민(미/비혼부모 포함)
표본 수	· 1,100명
조사 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
조사 기간	· 2020년 11월 16일~23일
조사내용	·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명절 경험 및 변화 전망, 노부모-성인자녀 관계, 결혼에 대한 인식 및 가족 평등 수준 등

2. 응답자 특성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전체		1,100	100.0
성별	남성	535	48.6
	여성	565	51.4
연령대	20대	52	4.7
	30대	341	31.0
	40대	485	44.1
	50대	222	20.2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혼인상태	기혼	1,059	96.3
	이혼/사별	30	2.7
	미혼	11	1.0
다문화가족 여부	다문화가족	60	5.5
	비다문화가족	1,040	94.5
자녀 유무	있음	963	87.5
	없음	137	12.5
지역	서울	289	26.3
	인천 및 경기도	351	31.9
	부산, 대구 및 경상도	246	22.4
	광주 및 전라도	83	7.5
	대전 및 충청도	101	9.2
	제주 및 강원도	30	2.7

III. 조사결과

1. 추석 명절 경험 및 명절 변화 전망

□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추석 명절 경험 변화 유무

- 조사참여자의 약 63%(696명)가 코로나19로 인해 이전과 다른 형태의 추석을 보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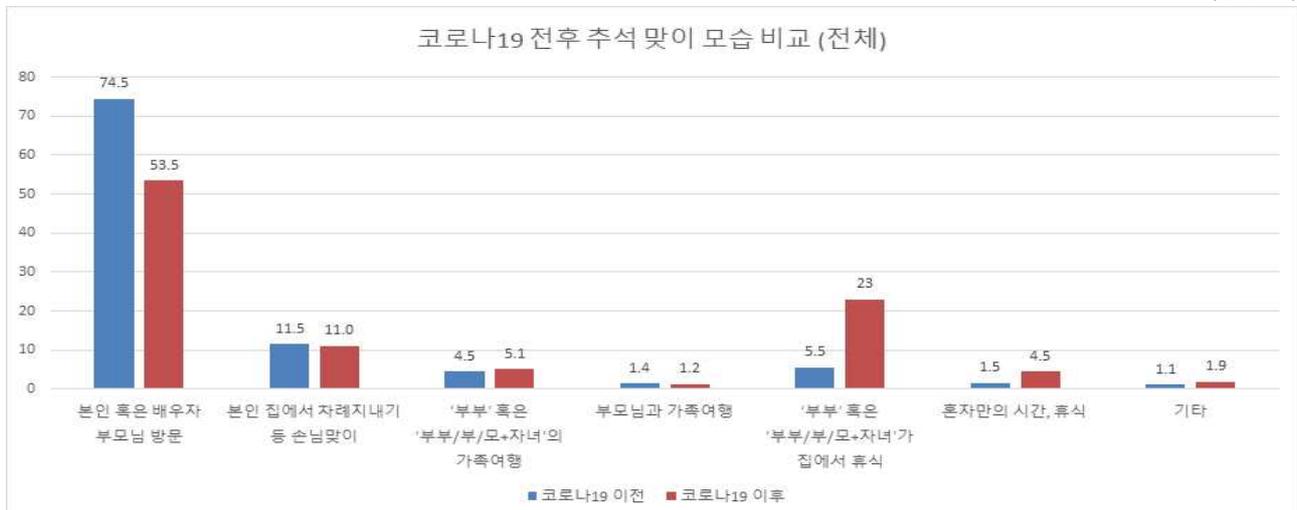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응답자 수	예	아니오
올해 추석은 지난 3년간의 추석 명절과 달랐습니까?	1,100	67.2(739)	32.8(361)
달랐다면,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것입니까?	739	94.2(696)	5.8(43)

□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추석 명절 맞이 모습 차이

- 전체적으로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올해 추석에는 '본인 혹은 배우자 부모님 방문'이 감소하고, '부부 혹은 부부/부/모+자녀가 집에서 휴식'을 취한 경우가 크게 증가함.

(단위: %)



- 성별 및 연령별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추석 명절 맞이 모습 차이는 아래 표와 같음.

(단위: %)

구분	본인 혹은 배우자 부모님 방문	본인 집에서 차례 지내기 등 손님 맞이	'부부' 혹은 '부부/ 부/모+자 녀'의 가족 여행	부모님과 가족여행	'부부' 혹은 '부부/ 부/모+자 녀'가 집에서 휴식	혼자만의 시간, 휴식	기타	
코로나19 이전 추석								
전체	74.5	11.5	4.5	1.4	5.5	1.5	1.1	
성별	남성	76.3	13.5	3.6	0.9	4.5	0.6	0.7
	여성	72.9	9.7	5.5	1.8	6.4	2.3	1.5
연령대	20대	59.6	13.5	13.5	5.8	5.8	0.0	1.9
	30대	81.2	6.2	6.5	0.9	3.2	0.9	1.2
	40대	74.2	14.4	3.1	1.6	4.7	1.0	0.8
	50대	68.5	13.1	2.7	0.5	10.4	3.6	1.4
코로나19 이후 추석								
전체	53.5	11.0	5.1	1.2	23.0	4.5	1.9	
성별	남성	55.7	14.0	3.9	1.3	20.2	3.6	1.3
	여성	51.3	8.1	6.2	1.1	25.7	5.3	2.3
연령대	20대	50.0	19.2	3.8	3.8	15.4	7.7	0.0
	30대	60.4	7.0	6.2	0.9	18.8	4.4	2.4
	40대	54.0	11.3	4.1	1.4	22.7	4.5	1.8
	50대	42.3	14.4	5.9	0.5	32.0	3.6	1.4

- 올해 추석 연휴 동안 '본인 혹은 배우자 부모님 방문'이나 '본인 집에서 차례 지내기 등 손님맞이'와 같이 떨어져 생활하는 가족과 대면 추석을 보낸 응답자 가운데 상당수도 추석 명절맞이 모습이 변화하였음을 보고함. 이전 명절과 비교해 '가족방문 시기 및 기간 조정', '가족모임 규모 축소', '명절맞이 방식 간소화' 등 예년과 비교해 달라진 추석 명절을 보낸 것으로 나타남.

(N = 709, 단위: %)

구분	변화 없음	변화 있음
가족방문 시기 및 기간 조정	34.7	65.3
가족모임 규모 축소	29.9	70.1
명절맞이 방식 간소화	26.2	73.8

주: 변화없음(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변화 있음(그런 편이다 + 매우 그렇다)

○ 올해 추석 명절맞이 방식 결정

- 코로나19로 인한 추석 명절맞이 방법 결정은 '부모님의 결정에 따름'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배우자와 함께 결정', '부모님 및 가족들과 함께 논의 후 결정'이 유사한 비율로 나타남. 성별, 연령대에 따라 결정의 방식은 조금씩 상이하였음.

(단위: %)

구분	전체	성별		연령대			
		남성	여성	20대	30대	40대	50대
부모님의 결정에 따름	33.6	37.8	29.7	23.1	30.2	37.1	33.8
배우자와 함께 결정	30.4	26.9	33.6	30.8	31.4	29.3	31.1
부모님 및 가족들과 함께 논의 후 결정	29.9	28.6	31.2	30.8	34.6	29.3	23.9
본인의 결정	6.1	6.7	5.5	15.4	3.8	4.3	11.3

□ 지금까지의 명절 경험에 대한 인식

- 전체 조사참여자의 80.5%가 지금까지의 명절을 ‘가족 간의 정을 나누는 기회’로 인식하였고,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함’, ‘민족 고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기회’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와 함께 ‘차례·명절 음식 준비, 손님맞이 등으로 스트레스 경험’을 응답한 경우가 62.3%에 이룸. 명절 경험은 성별, 연령대에 따라 상이하였음.

(단위: %)

구분	전체	성별		연령대			
		남성	여성	20대	30대	40대	50대
가족 간의 정을 나누는 기회	80.5	86.0	75.4	75.0	76.0	82.3	85.1
민족 고유의 정체성 확인하는 기회	62.5	66.7	58.6	67.3	60.1	62.1	66.2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 취함	64.1	72.3	56.3	75.0	67.2	60.4	64.9
명절 스트레스 경험	62.3	58.3	66.0	75.0	61.0	61.6	62.6
가족 간 호칭이나 방문순서 등으로 인한 갈등	37.5	35.3	39.5	53.8	43.1	35.5	29.3
성불평등한 가족문화로 불편감	45.3	42.1	48.3	63.5	52.2	43.3	34.7

주: 그런 편이다+매우 그렇다 응답 비율임

□ 이상적인 추석 명절 모습

- 조사참여자들이 보내고 싶은 추석 명절의 모습은 ‘본인 혹은 배우자 부모님 방문’이 62.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부부 혹은 부부/부/모+자녀의 가족여행’ 10.4%, ‘본인 집에서 차례 지내기 등 손님맞이’ 9.7%, ‘부부 혹은 부부/부/모+자녀가 집에서 휴식’ 9.5% 순으로 나타남. 이상적인 추석 명절의 모습은 성별, 연령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는데, 남성의 경우 ‘본인 혹은 배우자 부모님 방문’이나 ‘본인 집에서 차례지내기 등 손님맞이’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았던 반면, 여성의 경우 ‘본인 혹은 배우자 부모님 방문’ 다음으로 ‘부부 혹은 부부/부/모+자녀의 가족여행’ 순으로 나타났음. 연령별로 살펴보면, ‘본인 혹은 배우자 부모님 방문’에 대한 응답이 30대에서 가장 높았고, 50대가 가장 낮았음.

(단위: %)

구분	전체	성별		연령대			
		남성	여성	20대	30대	40대	50대
본인 혹은 배우자 부모님 방문	62.3	67.1	57.7	57.7	68.9	61.0	55.9
본인 집에서 차례지내기 등 손님맞이	9.7	12.5	7.1	17.3	4.7	12.0	10.8
'부부' 혹은 '부부/부/모+자녀'의 가족여행	10.4	7.9	12.7	9.6	12.0	9.3	10.4
부모님과 가족여행	3.6	2.2	5.0	7.7	3.5	3.3	3.6
'부부' 혹은 '부부/부/모+자녀'가 집에서 휴식	9.5	8.0	11.0	7.7	7.0	9.7	13.5
혼자만의 시간, 휴식	3.9	2.1	5.7	0.0	3.5	4.1	5.0
기타	0.6	0.2	0.9	0.0	0.3	0.6	0.9

□ 감염병 상시 위기 시대의 명절 문화 변화 전망

- 조사참여자들이 보내고 싶은 추석 명절의 모습으로 '본인 혹은 배우자 부모님 방문'과 같이 떨어져 생활하는 가족과의 만남 및 교류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응답자들의 상당수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 인해 명절 문화의 변화를 전망하였음. 특히 가족간 교류를 위한 분산 이동, 명절 문화의 간소화, 가족 중심보다 개인 중심의 시간 활용 등 이전 명절에서 나타나는 '명절 민족 대이동'과 같은 현상 혹은 명절 문화에 상당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였음.

(단위: %)

구분	전체	성별		연령대			
		남성	여성	20대	30대	40대	50대
가족 간의 만남이 명절 연휴에 국한되지 않고, 자율적인 분산이동이 있을 것	81.8	84.3	79.5	76.9	79.8	82.7	84.2
차례 등 명절문화는 간소화 혹은 변화될 것	83.5	84.7	82.5	76.9	79.2	84.9	88.7
명절음식을 만들어 가족들이 함께 나누어 먹는 문화는 점점 사라지게 될 것	75.3	74.8	75.8	71.2	75.1	74.8	77.5
가족들끼리 모이는 문화가 사라지고 떨어져 생활하는 가족과의 관계가 점점 소원해질 것	64.7	64.7	64.8	69.2	63.9	64.1	66.2
명절에 모이지 않더라도 가족간에 자주 연락하고 지내는 것에 의미를 둘 것	78.6	78.7	78.6	76.9	77.4	79.2	79.7
명절을 보내는 방식이 가족 중심이 아니라 개인 중심의 시간 활용이 증가할 것	81.5	80.9	81.9	82.7	79.8	81.6	83.3
가까이 사는 친구나 지인들과 모여 명절을 보내는 경우가 많아질 것	66.0	65.8	66.2	71.2	69.2	67.2	57.2
개인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선에서 이전과 같은 전통적인 명절 방식이 유지될 것	66.4	68.8	64.1	76.9	70.1	63.1	65.3

주: 동의한다+매우 동의한다 응답 비율임

2. 가족 관련 특성별 추석 명절 경험 및 변화 전망

□ 부모-성인자녀 관계 만족도

○ 부모-성인자녀 관계만족도에 따른 추석 명절 경험

- 부모-성인자녀 관계 만족도에 따른 추석 명절 경험을 살펴본 결과, 본인 부모 및 배우자 부모와 관계를 만족하는 경우 지금까지의 추석 명절을 '가족 간의 정을 나누는 기회'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음. 한편 남성의 경우 본인 및 배우자 부모와 관계에 불만족 하는 경우 '명절 스트레스 경험'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여성의 경우에는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를 만족하는 경우에도 '명절 스트레스 경험'이 높았음. 또한 여성의 경우 본인 및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를 불만족하는 경우 '성불평등한 가족문화로 불편감'을 경험했던 비율이 높았음.

(단위: %)

구분	남성				여성			
	나의 부모		배우자 부모		나의 부모		배우자 부모	
	불만족 (n=77)	만족 (n=430)	불만족 (n=65)	만족 (n=426)	불만족 (n=80)	만족 (n=459)	불만족 (n=137)	만족 (n=354)
가족 간의 정을 나누는 기회	67.5	89.8	73.8	88.3	53.8	79.7	59.9	81.9
민족 고유의 정체성 확인하는 기회	51.9	69.3	52.3	69.2	48.8	60.6	43.8	63.6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 취함	67.5	72.8	63.1	73.0	51.3	58.0	45.3	58.5
명절 스트레스 경험	74.0	56.5	70.8	56.6	65.0	66.0	70.1	65.8
가족 간 호칭이나 방문순서 등으로 인한 갈등	44.2	33.5	46.2	34.0	46.3	38.6	54.0	34.2
성불평등한 가족문화로 불편감	44.2	41.4	47.7	40.1	56.3	46.8	59.9	46.3

주: 동의한다+매우 동의한다 응답 비율임

○ 부모-성인자녀 관계 만족도에 따른 추석 명절 변화 전망

- 부모와의 관계를 만족하는 경우 '가족 간의 만남이 연휴에 국한되지 않고, 자율적인 분산 이동이 있을 것', '차례 등 명절문화는 간소화 혹은 변화될 것' 등의 명절 변화 전망에 동의하는 비율이 높았음. 한편 남성의 경우 부모와의 관계에 불만족하는 경우 '가족들끼리 모이는 문화가 사라지고 떨어져 생활하는 가족과의 관계가 점점 소원해질 것', '가까이 사는 친구나 지인들과 모여 명절을 보내는 경우가 많아질 것'에 대한 전망에 동의하는 비율이 높았음.

(단위: %)

구분	남성				여성			
	나의 부모		배우자 부모		나의 부모		배우자 부모	
	불만족	만족	불만족	만족	불만족	만족	불만족	만족
가족 간의 만남이 명절 연휴에 국한되지 않고, 자율적인 분산이동이 있을 것	70.1	87.0	72.3	86.9	65.0	81.5	75.9	80.8
차례 등 명절문화는 간소화 혹은 변화될 것	74.0	86.5	72.3	86.9	73.8	83.9	76.6	84.7
명절음식을 만들어 가족들이 함께 나누어 먹는 문화는 점점 사라지게 될 것	74.0	76.0	67.7	76.1	67.5	77.1	71.5	76.3
가족들끼리 모이는 문화가 사라지고 떨어져 생활하는 가족과의 관계가 점점 소원해질 것	79.2	62.1	67.7	64.6	65.0	64.3	63.5	63.6
명절에 모이지 않더라도 가족간에 자주 연락하고 지내는 것에 의미를 둘 것	80.5	79.3	80.0	79.3	68.8	80.2	73.7	80.5
명절을 보내는 방식이 가족 중심이 아니라 개인 중심의 시간 활용이 증가할 것	77.9	81.6	73.8	81.2	76.3	82.6	80.3	82.5
가까이 사는 친구나 지인들과 모여 명절을 보내는 경우가 많아질 것	76.6	63.7	72.3	63.4	60.0	67.1	64.2	67.2
개인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선에서 이전과 같은 전통적인 명절 방식이 유지될 것	58.4	70.5	58.5	70.7	52.5	66.2	59.9	65.5

주: 동의한다+매우 동의한다 응답 비율임

□ 결혼에 대한 인식

○ 결혼에 대한 인식에 따른 추석 명절 경험

- 결혼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경우 지금까지 경험한 추석 명절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결혼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경우 '명절 스트레스', '가족 간 호칭이나 방문순서 등으로 인한 갈등', '성불평등한 가족문화로 불편감' 등 추석과 관련한 부정적 경험을 높게 한 것으로 응답함.

구분	부정적 (n=162)		보통 (n=814)		긍정적 (n=124)		F-value
	M	SD	M	SD	M	SD	
가족 간의 정을 나눔	2.68 ^a	.76	2.96 ^b	.65	3.20 ^c	.70	21.71 ^{***}
민족 고유의 정체성 확인	2.34 ^a	.80	2.71 ^b	.74	2.85 ^b	.84	19.94 ^{***}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 취함	2.25 ^a	1.01	2.76 ^b	.77	2.96 ^b	.84	32.51 ^{***}
명절 스트레스 경험	3.00 ^c	.94	2.71 ^b	.77	2.37 ^a	.91	20.99 ^{***}
가족 간 호칭이나 방문순서 등으로 인한 갈등	2.56 ^c	.93	2.29 ^b	.83	1.69 ^a	.82	38.32 ^{***}
성불평등한 가족문화로 불편감	2.69 ^c	.95	2.42 ^b	.78	1.84 ^a	.88	39.50 ^{***}

주: 부정적: $X < M - SD$, 보통: $M - SD \leq X \leq M + SD$, 긍정적: $M + SD < X$

*** $p < .001$,

○ 결혼에 대한 인식에 따른 추석 명절 변화 전망

- 결혼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차례 등 명절문화 간소화 혹은 변화될 것'으로 전망하였고, 부정적일수록 '가족들끼리 모이는 문화가 사라지고 떨어져 생활하는 가족과의 관계가 점점 소원해질 것', '명절을 보내는 방식이 가족 중심이 아니라 개인 중심의 시간 활용이 증가할 것', '가까이 사는 친구나 지인들과 모여 명절을 보내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전망하였음.

구분	부정적 (n=162)		보통 (n=814)		긍정적 (n=124)		F-value
	M	SD	M	SD	M	SD	
가족 간의 만남이 명절 연휴에 국한되지 않고, 자율적인 분산이동이 있을 것	2.95	.69	2.86	.58	3.00	.60	3.76 [*]
차례 등 명절문화는 간소화 혹은 변화될 것	3.12 ^{ab}	.78	3.06 ^a	.66	3.28 ^b	.63	6.07 ^{**}
명절음식을 만들어 가족들이 함께 나누어 먹는 문화는 점점 사라지게 될 것	3.01	.80	2.91	.66	2.90	.75	1.50
가족들끼리 모이는 문화가 사라지고 떨어져 생활하는 가족과의 관계가 점점 소원해질 것	2.80 ^b	.85	2.77 ^b	.72	2.43 ^a	.76	12.24 ^{***}
명절에 모이지 않더라도 가족간에 자주 연락하고 지내는 것에 의미를 둘 것	3.04	.81	2.92	.66	3.02	.69	2.50
명절을 보내는 방식이 가족 중심이 아니라 개인 중심의 시간 활용이 증가할 것	3.20 ^b	.70	2.97 ^a	.64	2.93 ^a	.69	8.83 ^{***}
가까이 사는 친구나 지인들과 모여 명절을 보내는 경우가 많아질 것	2.93 ^b	.78	2.72 ^a	.69	2.69 ^a	.75	6.01 ^{**}
개인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선에서 이전과 같은 전통적인 명절 방식이 유지될 것	2.70	.80	2.74	.65	2.83	.66	1.30

주: 부정적: $X < M - SD$, 보통: $M - SD \leq X \leq M + SD$, 긍정적: $M + SD < X$

* $p < .05$, ** $p < .01$, *** $p < .001$,

□ 가족 평등 정도

- 가족 평등 정도에 따른 추석 명절 경험

- 가족 평등 정도가 높을수록 '가족 간의 정을 나눔',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함'과 같은 긍정적인 명절 경험을 보고하는 반면, 가족 평등 수준이 낮을수록 '가족 간 호칭이나 방문순서 등으로 인한 갈등', '성불평등한 가족문화로 불편감'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구분	낮음 (n=148)		보통 (n=850)		높음 (n=102)		F-value
	M	SD	M	SD	M	SD	
가족 간의 정을 나눔	2.55 ^a	.75	2.96 ^b	.64	3.34 ^c	.70	44.71 ^{***}
민족 고유의 정체성 확인	2.44 ^a	.75	2.68 ^b	.75	2.94 ^c	.85	13.23 ^{***}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 취함	2.36 ^a	.94	2.71 ^b	.79	3.16 ^c	.86	28.17 ^{***}
명절 스트레스 경험	2.76	.88	2.73	.80	2.57	.95	1.93
가족 간 호칭이나 방문순서 등으로 인한 갈등	2.44 ^b	.87	2.26 ^{ab}	.85	2.04 ^a	1.05	6.41 ^{**}
성불평등한 가족문화로 불편감	2.55 ^b	.90	2.40 ^b	.81	2.15 ^a	.99	7.04 ^{**}

주: 낮음: $X < M - SD$, 보통: $M - SD \leq X \leq M + SD$, 높음: $M + SD < X$
^{**} $p < .01$, ^{***} $p < .001$,

○ 가족 평등 정도에 따른 추석 명절 변화 전망

- 추석 명절 변화 전망과 관련하여 가족 평등 수준이 높을수록 자율적 분산이동, 명절문화의 간소화, 모이는 것 보다 연락하고 지내는 것에 의미 부여, 개인 중심의 시간 활용 증가 등의 변화 전망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구분	낮음 (n=148)		보통 (n=850)		높음 (n=102)		F-value
	M	SD	M	SD	M	SD	
가족 간의 만남이 명절 연휴에 국한되지 않고, 자율적인 분산이동이 있을 것	2.71 ^a	.74	2.90 ^{ab}	.56	3.08 ^c	.66	11.99 ^{***}
차례 등 명절문화는 간소화 혹은 변화될 것	2.94 ^a	.73	3.08 ^a	.67	3.42 ^b	.65	16.19 ^{***}
명절음식을 만들어 가족들이 함께 나누어 먹는 문화는 점점 사라지게 될 것	2.74 ^a	.72	2.93 ^b	.68	3.07 ^b	.73	7.72 ^{***}
가족들끼리 모이는 문화가 사라지고 떨어져 생활하는 가족과의 관계가 점점 소원해질 것	2.61	.76	2.75	.73	2.78	.87	2.59
명절에 모이지 않더라도 가족간에 자주 연락하고 지내는 것에 의미를 둘 것	2.74 ^a	.81	2.95 ^b	.65	3.24 ^c	.75	16.22 ^{***}
명절을 보내는 방식이 가족 중심이 아니라 개인 중심의 시간 활용이 증가할 것	2.95 ^a	.67	2.99 ^b	.64	3.18 ^b	.72	4.20 [*]
가까이 사는 친구나 지인들과 모여 명절을 보내는 경우가 많아질 것	2.66	.75	2.76	.69	2.78	.87	1.32
개인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선에서 이전과 같은 전통적인 명절 방식이 유지될 것	2.61 ^a	.78	2.76 ^{ab}	.65	2.86 ^b	.68	4.46 [*]

주: 낮음: $X < M - SD$, 보통: $M - SD \leq X \leq M + SD$, 높음: $M + SD < X$
^{*} $p < .05$, ^{***} $p < .001$,

IV. 결론 및 제언

1.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변화된 추석 명절 경험

- 코로나19 감염 위험과 확산 예방을 위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하에 맞이한 2020년 추석 명절은 이전 명절과는 다른 모습이었음. 떨어져 생활하는 부모님 방문이 감소하고 가족이 집에서 휴식을 취한 경우가 증가하였음. 떨어져 생활하는 가족과 함께 명절을 보낸 경우에도 방문 시기 및 기간 조정, 모임 규모 축소 등의 변화가 나타났음. 이러한 변화 경험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과 관련하여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함.

2. 감염병 위험 경험에 따라 명절 문화의 변화 예측

-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험 경험은 '민족 대이동'으로 상징되던 명절 고유의 모습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임. 조사대상자의 80% 이상이 명절 시기에 집중된 가족 만남보다 가족 만남 시기의 분산, 가족 중심보다 개인 중심의 시간 활용 증가 등의 명절 변화를 전망하였음.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에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있던 가족 변화를 가속화시킨 분수령으로, 한국 가족의 대표 문화였던 명절의 모습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이에 향후 사회 변화와 함께 한국 가족의 명절 문화 변화 모습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적절한 가족문화 관련 서비스 방향 설정을 고려한 것이 필요함.

3. 부모-성인자녀 관계 강화 및 건강한 가족관계 지원 확대

- 상당수의 조사대상자들이 명절 문화의 변화 가능성에 동의하였지만, 지난 명절에 대한 경험, 이상적인 명절 모습 및 구체적인 변화 방향에 대한 응답은 조사대상자들의 성별, 연령별, 가족 관계 경험에 따라 상이하였음.
- 특히 조사대상자들의 가족관계 경험은 실제 추석 경험 및 명절 변화 전망과 관련되어 있었음. 부모-자녀 관계를 만족하는 경우,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경우, 가족의 평등 수준이 높을수록 지난 명절에 대한 경험이 긍정적이었음. 또한 명절 변화 전망에서도 가족 관계가 좋은 경우 명절을 맞이하는 모습이 이전 명절 모습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 및 환경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적응·변화할 것으로 전망한 것을 바탕으로 할 때, 명절 연휴 동안의 가족 간의 모임과 만남 등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시점에 다양한 방식으로 가족 간의 유대를 유지하고자 하는 행동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됨.
- 반면, 부모-자녀 관계에 불만족하는 경우와 결혼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 함께 모이는 명절 문화 변화에 따라 가족관계가 소원해지거나 가족보다 친구나 지인들과 명절을 보내는 변화 전망에 동의하는 경우가 높았음. 62.3%의 조사대상자들이 응답한 보내고 싶은 추석 명절의 모습은 떨어져 생활하는 가족이 함께 어울리는 모습으로 나타남. 이러한 명절 동안 가족간의 정을 나누고자 하는 욕구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해 할 수 없는 상황 간의 간극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 마련과 함께 명절로 인한 만남 기회보다는 가족 전반에 대한 관계 강화, 민주적이고 성평등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은 모두가 만족스러운 명절이 될 수 있게 하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부모-자녀 간의 친밀감 향상, 민주적이고 성평등한 가족문화 조성 등을 통해 모든 가족구성원이 가족 간의 정을 느끼고 휴식을 경험할 수 있는 명절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가족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 필요함.